



김성수
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
원 조, 5사단·8사단
군악대장 역임, 광주
시립오페라단 운영실
장 역임, 현 광주시립
교향악단 운영실장.



피아니스트 박종해 /금호문화재단 제공

<44> 피아니스트 박종해



피아니스트 박종해는 섬세한 감정표현과, 뛰어난 상상력으로 작품 전체를 직관하는 음악가다. 2010년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, 2011년 이탈리아 에판시에서 수여하는 아르투로 베니데티 미켈란젤리상, 2018년 제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더욱 도약할 수 있었다. 오는 14일 2022년 광주시향의 신년음악회를 함께할 피아니스트 박종해를 만나 그의 음악 여정을 들었다.

-오랜만에 광주에 온 소감은.

▲광주에 온 건 작년 첼리스트 심준호씨와의 음반 발매 리사이틀 이후 약 1년만인데, 오랜만에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는 것과 맛있는 먹거리들을 즐길 생각에 설렌다.

-계속해서 국내외 협연과 실내악, 독주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. 최근 연주한 인상 깊은 공연을 꼽자면.

▲작년 한 해 정말 정신없이 많은 양의 연주를 했는데,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를 꼽자면 아마 금호상주 음악가인 클라리넷티스트 김한,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, 첼리스트 브래넨 조와 함께 한 메시앙의 '시간 종말을 위한 사중주'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. 정말 연주 마지막쯤엔 '아, 이대로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'는 생각을 할 만큼 무언가 큰 내면의 울림을 받았다.

-피아노를 배우게 된 계기와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.

▲사실 피아노를 배우기 전 바이올린과 첼로를 먼저 배웠었는데,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됐다. 당연히 미국에 이제 간 초등학교 생이라 영어도 못 하고 친구도 없고...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아노가 유일한 친구가 됐다. 그리고 그때부터 "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"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, 그게 현실이 됐다.

-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.

▲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운동선수가 됐을 것 같다. 평소에도 스포츠 보는 걸 즐기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해서다.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, 야구, 골프 등 많다.

-무대 위에서 즉흥연주를 자주 하는데, 그 곡을 악보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.

▲가끔 혼자서 즉흥연주를 하다 보면 '아, 이거 정말 괜찮았던 것 같은데...'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악보에 옮겨 적으려고 하면 막상 기억이 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다. 사실 그런 점이 즉흥의 매력인 것 같다. 그저 생각난 악상을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즉흥의 그 순간만 즐기고, 기록으로 굳이 남기지 않는 것이 나의 성격과도 더 잘 맞는 것 같다.

-수 많은 콩쿠르에 참가해 입상했다. 보통 콩쿠르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, 스스로 경험한 콩쿠르 참가의 과정과 의미란 무엇인가.

▲정말 10대 중후반부터 많은 국제 콩쿠르에 도전해 왔었는데,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게 콩쿠르의 세계인 것 같다. 분명 이변에는 됐다고 생각할 때는 안 되고, 이변 안 될 것 같다 하면 결과가 좋고... 그래서 콩쿠르 결과는 알 수 없고, 알려고도 하지 않으려 한다.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 얻는 것이 무조건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이다.

-요즘 가장 와 닿는 곡이 있다면.

▲평소에 듣는 게 80%가 클래식이고, 20%는 80-90년대 한국 가요다. 최근엔 독일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살짝 질려버린 나머지 요새는 풀랑크(Poulenc,



피아니스트 박종해. /@SangWookLee

섬세함·상상력으로
작품 직관하는 음악가

미국서 유일한 친구 됐던 피아노 연주 계기
최근 인상깊었던 무대 '시간 종말을 위한 사중주'
"즉흥은 순간을 즐기고 남기지 않는 것이 매력"

Francis)의 음악들을 즐겨 듣는다.

-본인의 감성을 가장 잘 담은 곡이 있다면.

▲어렸을 때는 30대 쯤 되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실히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. 아직 연주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, 잘 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찾는 중이다. 아마 죽기 전에는 알 수 있을지 않을까 한다.

-독주 외에도 듀오나 실내악 연주에도 많이 참여했다. 여럿이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 독주 이상의 매력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, 독주나 협연만큼 실내악을 즐기는 이유가 있다면.

▲피아노라는 악기가 아무래도 거의 혼자서 하는 악기이다 보니 독주회 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같다. 마치 사자 우리에 던져진 한 사람 같은 느낌 이랄까. 반면 실내악은 여러 음악가와 우정을 나누는 등 많은 것을 교류하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제일

큰 매력인 것 같다.

-피아니스트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.

▲피아노라는 악기 특성상 연주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악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다. 음악에 대한 이해도 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아노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향곡, 성악곡, 오페라 같은 음악도 많이 들어 그 음악들을 피아노에 녹여들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 하다.

-피아노를 잘 연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습 외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.

▲상상력, 삶의 경험인 것 같다. 가끔은 연습 10시간 하는 것 보다 나가서 10분 동안 생각한 게 도움이 되던 일들도 많다.

-미국 음악가 조지 거쉰의 '랩소디인 블루'의 매력

과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.

▲거의 모두가 아는 곡이기도 하고, 클래식과 재즈의 중간에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곡이라 더더욱 다양한 매력이 있다. 감상 포인트는 그저 신난다는 점? 즐거운 곡이라 신년음악회에 딱 어울리는 곡이다.

-신년 소망이 있다면.

▲신년 소망은 아마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하루 빨리 일상이 정상궤도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다.

-올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공연이나 레코딩 계획이 있다면.

▲작년에는 실내악 위주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솔로 무대를 많이 할 예정이다. 당장 독주회가 세 번 예정돼 있고, 올해 연주할 곡들로 레코딩도 계획 중에 있다.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2022년 광주시향 신년음악회 때 많은 분들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.